

2025 * No.53
July+August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

독자정보 변경과 구독 중지는 웹진과 독자 엽서,
전화를 통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자 엽서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뜨거울수록
아름다운
해 질 녘 풍경



*
COVER
STORY

가끔은 동화에서나 볼 법한
분홍빛 세상이 찾아오곤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름이지만,
우리들에겐 즐겁고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잘 익은 수박을 반으로 쪼개
엄마 한 입, 나 한 입, 동생 한 입 베어 물고,
원두막에 드러누워 봅니다.
해 질 녘 부드러운 바람과 미지근한 공기에
엄마의 자장가가 참으로 잘 어우러집니다.



여름방학_최성환[2022 作 | 73cm x 61cm | 마천에 혼합채색]

Vol.53
2025.07+08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CONTENTS

- | | |
|---|-------------------------------------|
| 04 차 한 잔의 향기
희귀난 수집가 이청 대표 | 36 우리집 식물원
희망을 이야기하는 꽃, 금잔화 |
| 08 문학의 향기
특별한 현대 | 38 일상의 향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 상처 |
| 12 길 위의 시간
프랑스, 니스 | 42 스마트한 생활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기 |
| 18 올댓 커피
1등급 커피가 없는 나라, 브라질 | 44 행복 레시피
열무 들기름 막국수 & 크리치오 쫄면쿠키 |
| 22 한국의 재발견
포쇄, 남은 땡벌로 녹록해진 책과 옷 말리기 | 46 동서 뉴스
동서식품의 다양한 소식 |
| 26 클래식 산책
쇼팽 〈연습곡 Op.28 No.15〉 ‘빗방울 전주곡’ | 48 삶의 향기 뉴스
독자 추천 도서와 엽서 분석 |
| 30 도시를 걷다
관동팔경 유람 | 50 게시판
독자 의견 및 퀴즈 |
| 34 맛있는 이야기
검은 면발의 치명적인 유혹 ‘짜장면’ | 51 브랜드 스토리
동서식품 제품 이야기 |

통권 제53호 발행일 2025년 7월 1일 발행(격월간·비매월)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등록번호 마00005 발행인 김광수
발행처 동서식품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별로55 홈페이지 www.dongsuh.co.kr 편집·디자인 케이아트만(주) T.(02)511-7053
인쇄 신영 T.(02)2275-1600 구독문의 편집실 T.(02)511-7053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난

희귀난 수집가 이청 대표

난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난을 아기 돌보듯이 애지중지한다는 것이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몇 년간 애정을 쏟아 돌봤더니, 예쁜 꽃을 피워낸다.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식물에 들인 시간만큼, 삶은 충만해진다는 것을.

글. 김호정 사진. 김재이

아름다운 난 테마파크를 꿈꾸는 이원난농원

한적한 김포의 시골 마을, 커다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갓 피어난 난 꽃향기가 가득하다. 이곳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수만 그루의 난이 사는 곳, 이원난농원이다.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은 조용한 이 공간에서 난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이어간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농원을 꾸려가고 있어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퇴직하고 농사를 지으셨어요. 운영하던 농장은 늘 적자였죠. 그러다 친구분들과 떠난 해외여행에서 난초를 보고 반해서 대량으로 들여온 것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는 전 세계를 돌며 원종을 수집하고, 보존을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농사도 농원도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난을 재배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한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싶었지만, 이청 대표는 결국 아버지의 걸로 돌아왔다. 농원을 제대로 키워 보기로 한 그는 농업학교를 다니고, 식물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며 농원을 이어갈 준비를 했다.

“아버지와는 운영 철학에서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대량 생산을 지향했지만, 아버지는 육종 중심으로 농원을 운영하길 바랐어요.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난 테마파크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셨죠.”

그가 구상한 난 테마파크는 단순한 재배를 넘어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우표, 엽서, 자동차 번호판 등 난에 관한 것을 수집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또 난이 젊은 세대보다는 실버 세대에 인기 많은 것에 착안해 새로운 반려 식물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식물은 노후에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에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교육 중심의 체험프로그램과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통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을 만나고, 삶을 나누는 내일

농원 운영 초반에는 사업을 키워서 성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난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다. 오랜 추억을 품은 동반자 혹은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이청 대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난초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보람도 크다.

“생명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 난초가 사람에게 주는 평화로움이 있어요. 작고 섬세한 생명을 보면서 집중하는 시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어르신들도 손에 난초를 하나씩 들려주면, 표정부터 바뀌는 게 보여요.”

그는 난 키움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난을 키우는 공간이다. 생육 환경이 맞지 않는 도시의 집에서 난을 키우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난초를 대신 돌봐 주는 곳. 그런데 돌봄의 범위는 식물에서 그치지 않고 점차 사람으로 확장되었다.

“키퍼이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 ‘키움터’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공간은 난초가 건강하게 자라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놀이터이자 정서적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청 대표는 ‘난알아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위로와 기쁨을 전한다. 그가 만드는 콘텐츠는 난을 파는 것을 넘어 문화를 팔고, 생명을 전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사업 확장이 쉽지 않고, 자금도 넉넉하지 않지만, 무엇이든 쉬운 길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난알아요’는 난에 관한 상식을 비롯해 난 키우는 법, 난 판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농원이 안정화되면, 난을 키우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들이 키우는 난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삶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시간과 정성, 기다림이 필요한 예술 활동

2,500종의 다양한 난을 보유하고 있는 농원이라, 가장

아끼는 난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꼭 빼놓지 않고 같은 질문을 한다고. 그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답을 한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난은 아니죠. 본인이 키우는 난 중에 유난히 정성을 많이 들였거나, 특별한 추억이 있는 난이 가장 귀한 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는 난이 가장 아끼는 난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난. 언젠가는 그 난이 제일 의미있는 식물이 되겠죠.”

희귀난은 단순히 외형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희소성과 유전적 특이성에 기반하고 있다. 같은 품종이라도 화형이 잘생긴 개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육종을 통한 아름다운 개체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고유의 가치를 부여한다.

“브라질산인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원래 붉은 꽃 계열이 흔해요. 그런데 노란색 계통이 나오면, 어떻게든 그 희귀난을 구하려 하죠. 수집가들은 그 혈통을 이어가거나 때로는 교배하는데, 부모보다 더 아름다운 변종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뿐인 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꽃을 피우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매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는 난초가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 난초가 귀족들의 문화로 자리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길 바란다. 그는 세계 난 전시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난초 전시회를 열고 싶다.

“희귀난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식물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예술 활동이죠. 꼭 희귀난이 아니더라도 정성 들여 키운 난초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향기>는 매호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자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에세이 등으로 채워집니다.
살아 있는 감수성과 힘 있는 필력을 가진 작가들이 펼치는 문학의 정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소 설

The 71st Story

특별한 환대

글. 이미영 일러스트. 조주홍



살다 보면 이상한 우연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조금은 신비한 그런 일 말이에요. 그날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우리는 ‘찾집’이라고 적힌 사각정의 간판을 올려보았어요. 수풀이 무성한 곳이었어요.

숲을 대문 사이로 돌계단이 보였지요. 약간은 으스스한 귀곡산장 같았지만, 우리의 서사 또한 그리 밝지 못했기에, 그럭저럭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

이층 누마루에 들어서자, 몇백 년 묵은 나무를 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탁자가 있었어요. 짚방석을 엮은 여섯 개의 의자도 있었고요. 의자는 식구 수대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승복 차림의 주인이 나오더군요. 그가 내민 메뉴판에 음료라고는 오미자차와 냉커피뿐이었어요. 사람을 접대하는데 허술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냉커피를 시켰지요. 사각정은 고즈넉한 곳이었어요. 오래된 바닥이며 난간에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손부채질을 하던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만 있어서 좋구나.”

엄마에게서 ‘우리’라는 말을 들은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거미줄이 실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평선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요.

**

이 글을 시작할 때 우연이라는 말을 꺼냈나요. 그래요. 그때였어요. 황금색 누런 두꺼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늘진 구석에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두꺼비 맞지? 와, 두꺼비다, 두꺼비! 우리는 저마다 탄성을 올렸어요. 주먹만 한 몸집에 눈알 같은 점을 등에 박은 두꺼비가 경계 없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지요.

“이 위에 절이 있다더니, 산기운이 영험하긴 한가 봐.”

여동생의 말에 엄마가 두 손을 합장하며 읊조렸어요.

“네 아버지한테 다녀온 줄 어떻게 아시고.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두꺼비는 독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가갈 엄두를 못 냈어요.

변성암을 닮은 이 양서류는 땅의 기운을 먹고 살아서 독을 가지게 된 건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그 이유로 설화나 민담에 나오는



신령한 존재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니깐요. 경이로운 눈빛을 받으며 두꺼비는 기둥 뒤로 사라졌어요.

“아빠가 커피를 참 좋아하셨는데…….”

냉커피의 차가운 기운이 몸 안에 스며들었어요. 쓴맛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여덟 해 동안 요양원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힘들어했던 것 중의 하나는 마음껏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현실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면회를 갈 때 마다 보온병에 담은 진한 커피를 아버지에게 가져다드렸지요. 말을 못 하는 병에 걸린 아버지가 그때만큼은 입가에 미소를 띠었어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깜박 잊고 있었네요.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우연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네요.

한 마리 배추흰나비가 날아든 거예요. 흰 날개를 팔랑거리며 시야에서 어른거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지요. 나비는 탁자 주위를 맴돌았어요. 처음엔 남동생의 잔에 살짝 앉더군요. 그다음에는 여동생이 들고 있는 잔에 앉았어요. 여동생이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다시 날아오르더군요. 그리곤 공중에서 몇 번 오르내리더니 내 잔으로 내려왔어요. 저릿한 감정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나비는 남편과 제부의 잔에도 차례차례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유리잔을 잡아채더니 꿀떡꿀떡 커피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모금도 못 넘기고 사례에 걸려버린 엄마. 기침을 하는 엄마의 입에 휴지를 대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 보듯 날아다니던 나비가 엄마의 유리잔에 다가왔어요. 엄마의 입술이 닿았던 곳에 내려앉았지요.

“끝까지 속을 태우지. 망할 영감 같으니라고.”

엄마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맞아요.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은 기일이었어요. 두어 시간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묘 앞에 술을 올렸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붓꽃도 심었어요. 나비가 날아간 후

에 어깨를 들썩이는 엄마를 위로했어요. 그사이 길었던 여름 해가 저물어버렸지요.

두꺼비도 나비도 떠난 탁자 주위로 어둠이 몰려왔어요. 주인이 등불을 켜려고 올라왔어요. 그의 발뒤꿈치를 따라다니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까만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는 우리 앞에서 배를 보이며 눕더군요.

남동생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기르는 고양이인가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어요. “기르는 건 아닌데 가끔 밥을 챙겨줍니다.” 남동생이 또다시 물었어요. “그럼 혹시 두꺼비나 나비를 기르신 적 있나요?”

주인이 껄껄 웃더군요. “그럴 리가요.”

찾집을 나왔어요. 고양이가 배웅하듯 우리보다 서너 걸음 앞서 걸었어요. 전신주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아래, 일곱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어요. 문득 붓꽃의 꽃말이 생각나더군요. 좋은 소식, 잘 전해주세요.



★ 작가 PROFILE : 01018
제17회 삼익문학기동서문학상 소설부문 입선



지중해의 햇살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프랑스, 니스

알프스산맥과 지중해가 만나는 리비에라 해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가 있다. 프랑스 남부 니스는 지중해 특유의 온화한 기후와 감각적인 풍경으로 사랑받는 도시다. 니스는 오랜 세월 유럽인들의 휴양지였으며, 예술가, 작가를 비롯한 많은 여행자에게 영감을 주어왔다. 뜨거운 햇살과 푸른 바다, 다채로운 시장과 골목. 니스의 첫인상은 따뜻한 푸른색이었다. 프랑스의 우아함에 지중해식 자유로움이 물어넣는 감성적인 도시에서의 시간들.

글/사진 박재신 [여행작가]





오페라 플라주와 타워 전망대

뜨거운 여름철 니스 해변은 바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활기가 넘치는 만큼 분주한 편이다. 반면 5월의 니스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반쯤 잠들어 있는 것만 같다. 따뜻한 푸른색이란 말이 있다면, 니스의 5월을 가리키는 색일 것이다. 나는 5월의 니스를 좋아한다. 처음 오페라 플라주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흐린 하늘이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살갗에 닿을 듯 말 듯 쾌적했다. 니스의 해변은 대부분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지중해 해변의 고운 모래사장과의 차이점이 있다. 비치 매트나 워터슈즈를 챙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해변을 누릴 수 있다. 물이 차는 자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부서지는 파도 소리 사이로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는 듯했다. 실제로 해변 바로 뒤편에는 니스의 대표적 문화 공간인 오페라 하우스(Opera de Nice)가 자리하고 있다. 오페라 플라주는 이름처럼 우아한 잔향을 남긴다.

해변 앞 파라솔과 라운지체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공 해변 구역에 일렬로 자리하고 있는

파란색 줄무늬의 벤치가 더 마음에 들었다.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지중해를 누릴 수 있다. 해안 산책로 프롬나드 데 장글레(Promenade des Anglais)에는 아침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 노트북을 들고 나와 일광욕을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다가도 언제든지 도시의 한복판에서 바다로 곧장 뛰어 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곳의 일상은 예술이 된다.

오페라 플라주에서 해안을 따라 몇 분만 걸어 올라가면 바다와 도시가 만나는 거대한 나선형의 벨란다 타워를 만날 수 있다. 19세기 초 해안을 비추기 위한 등대는 이제 전망대로 개방되어 니스의 전경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명소가 되었다. 무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걷기로 했다. 좁은 계단을 지나 조금씩 높아지는 침탐을 오를 때 볼 수 있는 풍경이 좋았다. 해가 긴 여름철에만 볼 수 있는 벨란다 타워의 일몰 풍경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홀했다. 햇살이 수면을 붉게 적시며 쏟아졌고 바닷가에 앉아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마치 촬영장의 스틸컷 같았다. ‘골든 니스’라는 이름으로 연출된 거대한 야외 촬영장이었다. 태양의 금빛이 다양한 피부색 위에 덧입혀지고, 모든 이가 같은 색으로 빛났다. 빛 받은 머리칼이 작은 파도처럼 살랑이듯 흘러내려 아름다웠다.

살레야 마켓과 프롬나드 뒤 빠이용

니스의 바닷가에서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살레야 마켓은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 시장으로, 화려한 꽃들과 신선한 농산물, 지역 특산품들이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은 요일에 따라 다양한 모



1. 오페라 플라주에서 보는 푸른 바다와 해변 마을.
2. 요트를 타고 여유롭게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
3. 해변 앞 스트라이프 문양의 파라솔,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4. 벨란다 타워에서 니스의 파노라마 뷰를 보고 있는 커플, 황금빛 일몰이 눈부시다.





1. 니스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살레야마켓,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프롬나드 뒤 빠이옹 공원 분수 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습이 되는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꽃과 농산물 시장이, 월요일에는 앤티크와 빈티지 아이템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열린다. 특히 여름철 저녁 시간대에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야시장을 구경할 수 있다. 이곳에서 나는 풀꽃 향이 나는 자그마한 방향제를 샀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아무 향기도 나지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니스의 향기와 분위기가 떠오른다.

살레야 마켓에서 마세나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길게 펼쳐진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솟아 나오는 분수가 마치 도심 속에 펼쳐진 푸른 강줄기처럼 보인다. 실제로 프롬나드 뒤 빠이옹 공원은 ‘빠이옹(Paillon)’이라는 강이 흐르던 자리였으나, 반복된 홍수로 인해 호수를 뒀었다. 이후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어 많은 시민과 여행자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공원의 분수 광장에는 유독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물기둥 사이를 뛰어다니고, 곁에서는 어른들까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함께 뛰며 웃고 있었다. 관광지 특유의 분위기와 여행이란 행위가 북돋워 주는 생동감, 순간을 즐기게 하는 천진난만함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에 차올라 있던 사람들의 감정이 나 또한 상기시켰다.

마세나 광장과 카프 다일

공원을 지나 천천히 걷다 보면 니스의 중심에 다다른다. 광장을 통해 열리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언제나 모이는 곳은 마세나 광장이다. 니스의 여러 관광지를 향한 출발점이자, 구시가지, 프롬나드 뒤 빠이옹, 현대 미술관, 해변 어디로든 달을 수 있는 도심의 나침반 같은 장소다.

마세나 광장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차로이자,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무대다. 광장을 둘러싼 붉은색 파사드의 건물들은 19세기 프랑스와 이탈리아 건축 양식이 혼합된 고전적 아름다움을 지녔고, 바닥엔 흑백의 격자무늬 타일이 펼쳐져 있어 광장 전체를 자연

스럽게 어우른다. 광장의 중앙에는 1950년대 세워진 태양의 분수(Fontaine du Soleil)가 자리하고 있다. 나는 니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 저녁에 이곳을 다시 걸었다. 석양빛이 보랏빛 어둠에 밀려나고 있었다.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사람들의 발끝까지 이어지는 여명은 미술관에 커다랗게 걸린 그림 같았다. 바다를 힘껏 즐기던 사람들, 반짝이는 파도와 부서지는 웃음소리들, 금빛 축복 속의 도시와 마지막 밤을 추억하려 애썼다.

만약 니스에서 가깝지만 조금 더 조용한 해변을 찾는다면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 니스 근교에서 선인장 마을로 유명한 에스로 향하던 날이었다. 기차 안에서 피곤했던 나와 일행은 모두 잠들어버렸다. 눈을 떠보니 도착한 곳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차역 ‘Cap d’Ail’이라는 낯선 표지판이 우릴 반겼다.

‘카프 다일(Cap d’Ail)’은 니스에서 기차로 약 15분 거리이자, 모나코를 품고 있는 해안선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이다.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에 가까운 분위기, 충분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역에서 내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말라 비치(Plage Mala)’는 조약돌과 바위가 어우러진 절벽 아래 숨은 듯 자리하고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부서지며 반짝이는 장면이 눈부시도록 선명했다.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저 바라본다는 행위 하나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나는 그저 빛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자, 선물처럼 주어지는 풍경이 있었고, 그 덕에 아쉬웠던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남프랑스를 완전히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우연처럼 찾아간 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여행을 정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카프 다일의 오후는 오래 기억에 남는다.

3. 격자무늬 타일이 펼쳐진 마세나 광장에 세워진 태양의 분수.
4.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윤슬과 바다를 만끽하는 사람들.





1등급 커피가 없는 나라,
브라질

Brazil

브라질 커피에 대해 세계인들은 몇 가지는 알지만, 모르는 것이 의외로 많다. 세계인들이 모두 아는 이야기는 브라질이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 1위 국가라는 사실이다. 브라질은 커피 재배를 시작한 지 100년 정도 지난 1820년대에 생산량이 급증해서 세계 커피 소비량의 20%를 차지하였고, 1830년대에는 30%, 그리고 1840년대에는 40%를 넘어섰다. 브라질 커피의 등장으로 유럽 지역의 커피 대중화가 가능하였다. 즉,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 해제된 1815년 이후 시작된 유럽의 커피 수요 급증을 흡수한 것이 브라질의 커피 생산 본격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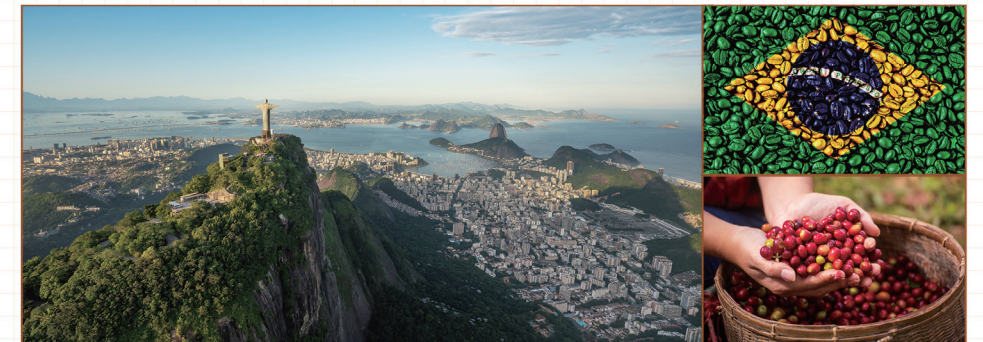
글. 이길상[커피인문학자, 교육학박사] 일러스트. 마시

브라질 커피는 가격의 커피?

1820년대에서 1840년대까지의 비더마이어 시대, 세계 커피 역사에서 제1차 커피붐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만든 것은 바로 브라질의 커피 생산 확대였다. 이후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20년대에는 세계 커피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차지했을 정도다. 현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경쟁 국가의 등장으로 30퍼센트 조금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커피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또 다른 이야기는 브라질에 커피를 옮겨 심은 매우 용감한 포르투갈 장교의 무용담이다. 1727년 프랑스령 기아나와 네덜란드령 기아나 사이의 국경 분쟁 중재를 위해 프란시스코 팔헤타(Fransisco de Melo Palheta)가 파견되었다. 그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재배되고 있던 커피 묘목을 빼내기 위해 그 지역 총통의 아내를 유혹했고,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팔헤타에게 총통의 아내는 커피 씨앗이 든 꽃다발을 전달해 주었다. 이 커피가 브라질 파라(Para) 지역에 심어진 것이 브라질 커피의 기원이었다는 얘기가. 물론 정확한 문서 기록이나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커피 역사에서 차지하는 브라질의 중요성과 이야기의 낭만성 때문에 널리 퍼져 있다.

브라질 커피가 질보다는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는 평범한 커피라는 오래된 통념이 있다. 즉, 브라질 커피는 향미에 특색이 없는 저가의 커피라는 오래된 고정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통념을 반영하여 ‘가격의 커피’라는 표현도 브라질 커피를 상징하는 용어로 자주 쓰인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커피 시장에서 커피는 ‘브라질커피’와 ‘마일드커피’로 구분하였다. 콜롬비아 등에서 생산되는 부드러운 마일드커피에 대비되는 거친 맛의 커피가 브라질커피였고,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였다. 물론 지금도 브라질 커피는 블렌딩 커피 제조 과정에서 여러 특색 있는 커피의 맛이나 향을 방해하지 않는 베이스 커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과 맛이나 향이 무난하다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브라질 커피의 모든 특성을 말해주



지는 않는다. 브라질은 평범한 향미의 중저가 커피, 이른바 상업용 커피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한 향미를 지닌 고품질의 스페셜티 커피를 적지 않게 생산한다. 전체 생산량의 10~15%에 불과하지만, 양으로는 년 40만 톤 이상으로 웬만한 중남미 커피 생산국의 총생산량보다 많다.

작은 커피, 카페지뉴 한 잔

다음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브라질이 세계 커피 총소비량에서 미국에 이어 2위 국가라는 것이다. EU 국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소비한다. 물론 2억 이상인 인구 규모가 주는 영향이 크지만, 1인당 커피 소비량도 현재 우리나라보다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브라질의 커피 작황은 세계 커피 시장의 변동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였다. 최근 세계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커피 생두 가격 상승도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가 가져온 현상이었다. 이제는 인구 대국 브라질의 커피 소비 확대도 세계 커피 시장 변동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커피 소비의 확대는 해외 수출 물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세계 커피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하다.

이렇듯 세계 커피 생산 및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브라질의 중요성에 비해 브라질의 커피 문화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커피 생산 주도국답게 브라질 사람들에게 커피를 마시는 일은 일상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마시는 커피에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커피 마시는 풍습이 특별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브라질 사람들의 커피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카페지뉴(cafezinho)’다. ‘작은 커피’라는 의미인데 브라질 사람들은 손님이 왔다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반갑다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카페지뉴는 흔한 인사말인 동시에 커피 형태의 하나다. 매우 뜨겁게 내려진 작은 양의 커피이고, 작은 컵에 담긴다는 점에서는 에스프레소와 비슷하다. 다만 에스프레소처럼 압력을 가해 빠르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과식이라는 점에서 맛은 전혀 다르다. 카페지뉴 한 잔은 보통 50~70ml 정도로 에스프레소의 두 배 정도 분량이다. 마시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은 이탈리아의 바르에서 즐기는 에스프레소 문화와 매우 닮았다. 길거리 주유소나 대중 식당에는 커피 머신과 카페지뉴용 작은 잔이 놓여 있어서 주유를 하거나 음식을 주문한 고객은 누구나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 물론 해외로 수출되는 수준의 세계 최상급 커피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커피를 대하는 신성한 마음가짐

브라질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는 매우 단순한 편이다. 요즘 유행하는 카푸치노, 아이스커피, 카페라떼, 마끼야또 등 커피에 여러 가지 물질을 혼합하는 커피는 흔하지 않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로는 카페라떼와 비슷한 ‘카페 콩 레이씨(Cafe com leite)’가 있지만 양이 매우 적고 널리 음용되는 편은 아니다.

브라질 커피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홈 카페 문화다. 쿠바와 유사하다. 따라서 브라질 커피 소비의 약 70퍼센트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형궤으로 된 필터가 많이 사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커피를 4~6잔 정도 마신다. 식사 전후, 중간에 마치 유럽인들이 맥주나 와인을 마시듯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식사와 함께 마시는 물이 브라질에서는 커피라고 보면 된다. 이런 문화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최근이다.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브라질의 대도시에 등장한 카페나 큰 레스토랑 등에서는 카푸치노를 비롯하여 서구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커피 음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브라질인들의 커피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주는 것은 등급 분류 방식이다. 브라질은 생두 300그램에 포함된 결점두의 개수로 등급을 나눈다. 결점두가 4개 이하인 No. 2부터 46~86개인 No. 6까지 5등급 체계다. 그런데 No.1, 즉 1등급은 없다. 손으로 선별해서 하는 핸드 피킹 수확이 아니라 기계로 훑어서 하는 스트립 수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썩은 결점두나 익지 않은 미숙두가 섞이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커피 등급 분류에서 1등급이 없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브라질 사람들이 커피를 대하는 독특한 마음가짐이다. 아직 1등급 커피는 신이 인간에게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커피 등급에서 ‘No. 1’을 비워 둔 배경이라고 한다. 훗날 신이 1등급 커피를 내려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브라질 사람들은 성실하게 커피를 재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언젠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No. 1 등급의 커피, 신이 내린 선물을 마셔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불별더위 멈추고
가을 별을 기다리는 마음

*

포쇄(曝曬), 남은 땡벌으로
눅눅해진 책과 옷 말리기



조선왕조실록을 습기와 충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말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식

8월 7일은 24절기 가운데 열 셋째 입추(立秋)다. 입추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인데 이날부터 입동(立冬) 전까지 가을 절기라고 한다. 《고려사》 권84 「지(志)」38에 “입추에는 관리에게 하루 휴가를 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글. 김영조[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문화신문 발행인]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가을별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의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높푸른 하늘에 내걸린 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여 눈부시다”

-박노해 <가을별>中

박노해 시인은 노래한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불별더위는 사라지고 이제 가을 별이 좋으므로 고추를 따서 말리고, 높푸른 하늘에 내걸린 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여 눈부시다”라고. 흔히 처서를 말할 때 “땅에서는 가을이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한다. 처서 무렵엔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해충들의 성화도 줄어들고,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불별더위에 고생하고 있지만,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 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때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내리쬐는 하루 땡벌에 쌀이 12만 섬(1998년 기준)이나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으니, 풍년을 위해 불별더위도 참고 견뎌내는 아량도 필요하다.



닳새 이상 비가 오면 기청제 지내고 부부도 각방을 써

입추 무렵은 비가 한창 익어가는 때라, 조선시대에는 이때 비가 닳새 이상 계속되면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청제(祈晴祭)를 올렸는데 성문제(城門祭) 또는 천상제(川上祭)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성안으로 통하는 물길을 막고, 성안의 모든 샘물을 덮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안 사람은 물을 써서는 안 되며, 소변을 보아서도 안 되었다.

또한 비를 섭섭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부부관계까지도 비를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기청제 지내는 전날 밤에는 부부가 각방을 써야 했다. 그리고 양방(陽方)인 남문(南門)을 열고 음방(陰方)인 북문은 닫는다. 이날 음(陰)인 부녀자의 시장 나들이는 절대 금한다. 제사를 지내는 곳에는 양색(陽色)인 붉은 깃발을 휘날리고 제주(祭主)도 붉은 옷차림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처서 무렵만 하더라도 언론에 “사상 최악의 폭염…온열질환·가축폐사 잇따라”와 같은 기사 제목을 수십 건 볼 수 있었다. 그때 온열질환자 수가 2,900명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불볕더위에 폐사한 양식장 어류와 가축은 667만 마리에 이른다고 보도되었다. 뉴스에 나온 한 배달노동자는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닥이 너무 뜨겁습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서(處暑) 절기가 오면 불볕더위가 아직 맹위를 떨쳐도 오는 가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가 되면 선비들은 여름철 동안 눅눅해진 책을 말리는 ‘포쇄’를 한다. 포쇄를 할 때에는 우선 ‘거풍(擧風)’, 곧 바람을 쐬고 아직 남은 땀벌로 포쇄(曝曬)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음건(陰乾) 곧 그늘에 말리기도 한다. 특히 처서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에 포쇄별관을 보내 실록을 말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이때 농부들은 곡식이나 고추를 말리고, 부녀자들은 옷을 말린다. 우리도 지난여름에 폭폭 젖은 마음을 남은 땀벌로 포쇄를 해 보면 어떨까?

옛사람들은 왜 말복 전에 입추를 오게 했나?

8월 7일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난 뒤의 더위는 남은 더위란 뜻의 잔서(殘暑)라 했다. 다만, 가을이 들어서는 때라는 입추가 지나도 이후 말복이 들어 있어 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서가

다가와도 더위가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왜 입추를 말복(末伏) 전에 오게 했을까? 주역에서 보면 남자라고 해서 양기만을, 여자라고 해서 음기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중첩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계절도 마찬가지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입추와 말복이 하는 것이다. 또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면 기온의 차이를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입추가 지난 뒤에는 ‘가을 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에 대비한다. 이 무렵에는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정거리다 7월을 보내고, 다시 건들거리다 보면 8월도 지난다는 의미다. 모내기과 보리 수확으로 매우 바쁜 달인 5월의 “밭등에 오줌 심다”, 가을걷이에 눈코 뜰 새 없는 10월의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라는 표현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말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입추라고는 해도 아직 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새 열대야에 시달림은 계속된다. 하지만 입추는 분명 가을을 잉태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북녘 하늘 저편 어딘가로부터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아직 남은 잔서를 이겨내 보자.



1. 비가 닳새 이상 계속되면 비를 멈추게 해달라는 기청제를 올렸다. (그림 이무성 작가) 2. 처서 무렵이 되면 부인은 옷을, 선비는 책을 말렸다. (그림 이무성 작가) 3. 가을이 들어선다는 입추 뒤에 말복이 오는 까닭은? (그림 이무성 작가)

빛속에서 연인과 아이들을 기다리다

쇼팽 <연습곡 Op.28 No.15> '빗방울 전주곡'



Prelude in D flat major Op.28 No.15

초조함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쇼팽 피아노
국제 콩쿠르 3차 무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



2019년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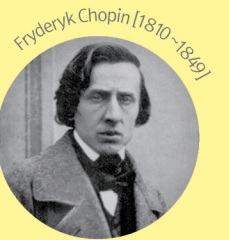


2020년 피아니스트
에릭 루의 연주.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연인으로 프레데리크 쇼팽과 조르주 상드를 빼놓을 수 없다. 폴란드 출신의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던 쇼팽과 남장을 한 채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던 조르주 상드의 사랑은 그들의 삶처럼 극적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파리를 떠나 스페인 마요르카로 떠났다. 그러던 어느 저녁 폭우가 쏟아졌는데, 불안에 차올랐던 쇼팽은 상드를 기다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렇게 '빗방울 전주곡'이 탄생했다.

글: 정은주 [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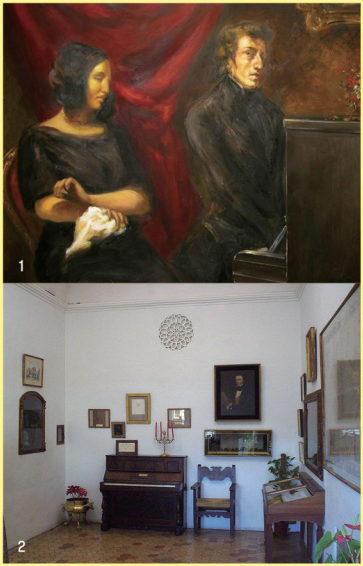
파리의 연인



프레데리크 쇼팽(1810~1849)과 조르주 상드(1804~1876)는 1836년부터 약 9년간 연인으로 지냈다. 남편과 이혼 후 죽을 때까지 여러 남성과 연애를 이어갔던 조르주 상드와 달리 쇼팽은 조르주 상드를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자신을 냉정하게 떠나버린 상드를 쇼팽은 평생 잊지 않았다. 결국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쇼팽에게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주었던 조르주 상드와의 관계는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었다. 실제로 조르주 상드는 자신의 일기에서 쇼팽을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쇼팽과 상드의 두 아이(아들 모리스, 딸 솔랑주)를 위해 직접 집밥을 정성껏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약 700편의 요리법을 기록할 정도로 가족과 연인을 위해 요리하는 일을 즐겼던 상드의 성향에서 쇼팽은 그리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쇼팽과 상드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점 하나는 첫 만남에서는 쇼팽이 상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드가 16살 연상이라는 점, 남장을 하고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태우는 점 등 당시의 여성들이 하지 않았던 여러 행동들을 즐기던 캐릭터였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다 싶다. 심지어 당시 프랑스의 법은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고 다니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상드는 이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남성 복식을 입고 다녔다. 이러한 성향의 상드에게 쇼팽이 마음을 쉽게 열었을 리 만무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에서 쇼팽은 상드의 매력을 알아봤고,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

18세에 원치 않던 결혼을 했던 상드는 1836년 7월 29일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권, 재산권 등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상드의 남편은 가정 폭력을 일삼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쇼팽을 만났다. 자연스레 그들은 세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차츰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남을 이어갔다. 상드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노양의 대저택에서 함께 지내며 두 사람은 가족 같은 사랑을 시작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스페인의 마요르카로 떠났다.



1. 델라크루아의 1838년 작품 '프레데리크 쇼팽과 조르주 상드의 초상화'를 가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상드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쇼팽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2. 쇼팽과 상드가 마요르카에서 지냈던 공간은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 중이다. ©위키피디아

마요르카의 겨울

그들이 마요르카에서 처음 구한 집은 바람의 집이라 불리던 별장에 딸린 작은 별채였다. 쇼팽은 파리의 친구 올리안 폰타나에게 종려나무, 삼나무, 선인장, 올리브 나무 등 많은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집에서 쇼팽의 폐결핵 증상이 심해졌다. 상드는 마요르카의 의사를 불러 쇼팽의 치료를 부탁했다. 처음 온 의사는 쇼팽을 치료도 하지 않고 가버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스페인 보건당국은 스페인 법에 따라 폐결핵 환자에게 일종의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환자가 땀던 마차부터 환자가 사용했던 모든 것을 불에 태워야 했다. 마요르카의 집주인은 쇼팽 일행을 쫓아냈다.

이후 쇼팽 일행은 머물 곳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발데모사 지역의 버려진 카르투지 오회수도원에 묵게 됐다. 이곳에서 쇼팽과 상드와 그의 아이들이 함께 지냈다. 당시 마요르카 사람들은 폐결핵 환자인 쇼팽과 그의 일행을 외톨이로 만들었다. 상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음식 등을 팔지 않는 것에 모두 합의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나마 파는 식재료는 엄청 비싼 값에 사야 했다고 분노를 기록했다. 쇼팽의 여러 증상 중 하나는 객혈이었다. 기침이 시작되면 한 바가지의 피를 쏟곤 했다. 쇼팽은 자신의 병으로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마요르카에서 자가 격리를 하며 우울한 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피아노 선율에 대한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았다. 쇼팽은 이 감정과 악상을 오선지에 열심히 그려 넣었다. 쇼팽이 자신의 장례식에서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던 곡〈전주곡, Op.28-4〉도 이곳에서 작곡했다.

빗방울 전주곡

1839년 1월 9일 수도원으로 쇼팽을 위한 피아노가 도착했다. 파리의 피아노 제작자이자 쇼팽의 친구였던 플레엘이 쇼팽을 위해 제작해 보낸 피아노였다. 쇼팽은 이곳에서 전주곡집, 연습곡집 등 여러 대표 작품을 작곡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드는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했다. 그런데 저녁때가

되도록 상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쇼팽은 무척 초조해했다. 이날 쇼팽이 피아노 앞에서 작곡했다고 알려진 작품이 '빗방울 전주곡'이라 불리는 〈연습곡, op.28의 15번〉이다.

다행히 상드와 아이들이 무사히 숙소로 도착했다. 당시 쇼팽은 집에 돌아온 상드와 아이들을 보자마자 “당신들이 모두 죽은 줄 알았다”고 소리쳤다. 상드가 쓴 일기에 전해지는 내용이다. 쇼팽이 직접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부제를 짓지 않았다. 이 작품을 연주하고 공부했던 피아니스트 한스 폰 빌로(1830~1894), 알프레드 코르토(1877~1962) 등이 빗방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빗방울 전주곡'은 피아노 한 대로 들려주는 우울한 빗소리, 쇼팽과 상드의 사랑처럼 극적인 음악이 흐르는 작품이다. 반복되는 음형에서 연상되는 빗소리는 쇼팽이 기다리던 초조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특히 오른손의 단순한 선율과 왼손의 반복적인 '내림D b'은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인데,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격정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흔히 쇼팽을 피아노의 시인이라 부른다. 그 까닭은 뛰어났던 쇼팽의 피아노 연주 실력도 있겠지만 그가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수많은 작품 때문이다. 그가 남긴 작품의 수는 260여 곡으로 추정한다. 쇼팽이 죽은 후 발견되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악보, 미완성의 악보, 쇼팽이 폐기 하려던 악보를 가족이 버리지 않고 간직한 악보 등을 포함하며 앞으로 이 수치는 바뀔 가능성도 크다. 그중 실제로 출판되고 연주되는 쇼팽의 작품 수는 220여 곡으로 추려볼 수 있다. 그중에서 피아노 작품은 190여 곡에 이른다. 공식적인 출판 기록이 있는 여덟 살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약 30년간 260곡을 쓴 셈. 1년 평균 8.6곡을 썼다.



1. 쇼팽이 작곡했던 '빗방울 전주곡' 원본 악보다. 수정한 흔적이 꽤 보인다. ©위키피디아
2. 마요르카의 발데모사에 있는 쇼팽의 동상이다. 당시에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쇼팽의 방문이기에 오늘날까지 마요르카에 서는 쇼팽과 상드의 추억을 기리고 있다. ©위키피디아



점을 찍고 뒤돌아보니
선이 되었더라

관동팔경 유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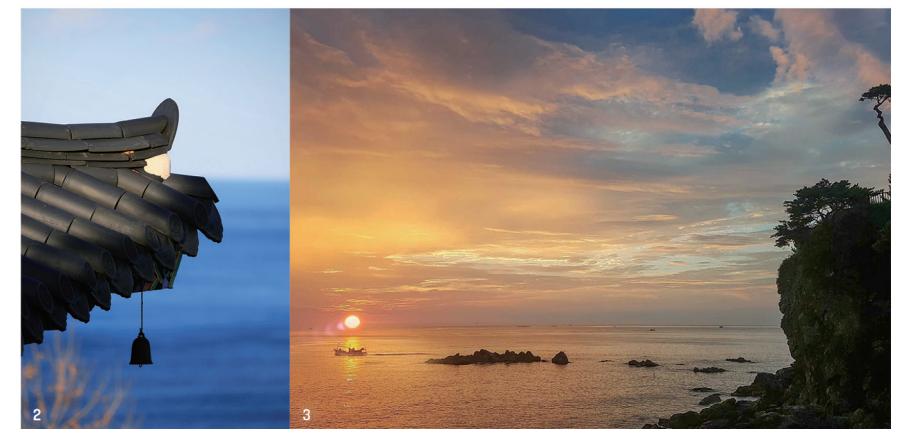
관동은 대관령의 동쪽을 뜻한다. 관동에는 쪽빛 바다와 고요한 호수, 울창한 산림과 깊은 계곡이 어우러져 최고의 절경을 자랑한다. 선인들은 이곳을 유람하며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다. 북녘에 있는 총석정, 삼일포를 시작으로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이 바로 그것, 관동팔경이다. 시인 묵객들의 발자취가 따라 관동팔경 유람을 떠난다.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남한 최북단 청간정과 일출 명소 의상대

관동팔경 유람은 7번 국도를 따라 점처럼 이어진다. 고성 청간정에서 최종 목적지 울진 월송정까지 서너 시간이면 완주할 거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도로 중 빼어난 절경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 만큼 차가 완행열차처럼 여기저기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먼저 고성의 청간정에 도착했다. 청간정 오르는 길에 백일홍이 곱다.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조붓한 길 뒤에 청간정이 있다. 2층 규모에 팔작지붕을 이은 청간정은 홀로 서서 거대하다. 누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만경창파 동해가 드넓다. 누각에는 두 개의 ‘청간정’이라 쓴 현판이 누각 안팎에 걸려있다. 바깥쪽 것은 원래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현판이었으나, 어느 때인가 유실되어 1928년 독립운동가 청파 전형윤이 다시 써서 걸었다. 안쪽 현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두 번째 목적지는 양양의 의상대이다. 의상대에서 일출을 볼 생각에 알람을 새벽 4시에 맞추고 잠들었다. 미명도 없는 시각 바다 앞에 섰다. 사실 동해안이라면 어디서나 일출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의상대에 앉아 일출을 보리라’며 의상대를 콕 짚었다. 정철은 일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 6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다에 떠오를 때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하늘 위에 해가 뜨니 터럭 한 올조차 셀 수 있겠구나” 예나 지금이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의상대는 낙산사 동쪽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다. 이곳을 의상대라 부르는 이유는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할 때 바다를 향해 우뚝한 대에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좌선하던 곳이다’라는 의미다.



1. 소나무숲길 끝에 만나는 청간정.
2. 양양 낙산사의 풍경.
3. 의상대 일출.
©한국관광공사

경포호 내려다보는 경포대와 오십천 위에 우뚝 선 죽서루

세 번째 목적지는 강릉의 경포대이다. 경포대는 경포해수욕장과 가까우면서 경포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다. 고려 때 지어진 경포대는 조선 중종 연간에 현 위치로 옮긴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어 정면 5칸, 측면 5칸의 모습으로 오늘에 이른다. 경포대의 건축 특징 가운데 핵심은 3단으로 구성된 마루이다. 마루에 단차를 둔 것은 조망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3단 마루에 오르면 경포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이 왈칵 밀려올 것 같은 경포대해수욕장의 장쾌한 풍경을 마주한다. 누각 안에는 중국의 명필 주지번의 글씨로 알려진 ‘제일강산’ 현판 이외에도 울곡 이이가 10세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와 속종 어제시 등 시문과 현판이 18개나 걸려있다. 차를 몰아삼척으로 가기 전 심곡항으로 우회한다. 심곡항에서 금진항까지 약 2km 구간은 바다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많다.

네 번째 목적지는 삼척의 죽서루이다. 오십천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한 죽서루가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고려 명종 연간이다. 이후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중건과 증축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그러니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죽서루는 정면 7칸 비대칭 구조로 누각을 떠받치는 기둥만 총 22개에 이른다. 그중 자연암반 위에 세워진 기둥이 13개이고, 9개는 자연석 초석을 두고 받쳤다. 바람이 스며들고, 햇살이 깊숙이 들어마치 죽서루가 숨을 쉬는 것 같다. 죽서루에는 조선 속종과 정조의 어제시를 비롯해 유명한 시인들의 한시가 새겨진 현판이 28점에 이르고, 정선, 김홍도, 강세황 등 유명 묵객들이 찾아와 죽서루를 화폭에 남겼다. 죽서루 경내 동쪽에는 석문이라 불리는 바위문을 비롯해 기암들이 즐비해 볼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대숲이 울창해 유유자적 시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점처럼 이어진 여정의 마지막 망양정과 월송정

다섯 번째 목적지 망양정이 있는 울진은 과거 천년 넘게 강원도에 속했다. 경상북도에 편입된 것은 1962년부터다. 망양정은 조선 속종이 ‘관동제일루’라는 편액을 하사할 만큼 관동팔경 중 으뜸이었다. 특히 망양정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풍경과 바다로 흘러드는 왕피천과 남대천이 빛어내는 경치는 압도적이다. 정자에는 망양정의 풍경을 예찬한 편액이 줄줄이 걸렸다. 그중 속종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관동팔경을 그림으로 그려오라 명한 뒤, 그림을 두루 살펴보고는 망양정이 으뜸이라며 ‘관동제일루’라 쓴 친필 편액을 하사했다.

어느덧 관동팔경 유람의 마지막 여섯 번째 목적지인 월송정에 닿는다. 고려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월송정은 아쉽게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해 철거됐다. 1980년대에 복원됐다. 현대에 복원

된 만큼 현판 글씨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썼다. 이름의 유래는 ‘달빛과 어울리는 솔숲’이라는 설과 ‘신선이 솔숲을 날아 넘는다’라는 설 등 다양하지만, 솔숲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월송정을 에두른 솔숲은 깊고 울창하며 솔향이 짙다. 그들이 넉넉하므로 더위를 식히기에 그만이다. 솔숲은 곡선을 그리며 바다까지 이어진다.

관동팔경 유람을 마치며 이런 생각이 든다. 관동팔경의 아름다운 경치는 드넓은 바다의 한낱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점들이 연결되는 순간 하나의 여정이 된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점을 찍고 싶은 순간들은 관동팔경처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점처럼 보이는 짧은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일 것이다.

1. 우리나라 3대 해변으로 꼽히는 경포대해변.
2. 여름 더위도 걱정 없을 탁트인 죽서루.
3. 죽서루 동쪽 연근당 자리 곁에 있는 자연 바위문(석문).
4. 조선 속종이 관동제일루 편액을 하사한 망양정.
5. 죽서루 동편에 자리한 대나무숲.

검은 면발의 치명적인 유혹 ‘짜장면’

제철 음식을 찾다 보면 매년 바다에
눈길이 쏠린다. 아무래도 철을 따지
는 인기 식재료엔 해산물이 많은 까
닭이다. 하지만 계절은 공평하다. 날
이 바뀌면 산물이 맛을 품는 이치는
육지에도 어김없다. 그러다 보니 의
외의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다.

글/사진. 이우석[농고먹기연구소장]



짜장면의 제철은 여름?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짜장면에도 제철이란 것이 있었다. 여름 제철 음식 짜장면이라니. 생소
하지만 정말 짜장면에도 제철이 존재한다. 바로 양파 때문이다. 국내 양파 수확 시기인 6~7월
은 양파를 많이 쓰는 중국집에서 각종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다. 보통 중국 음식점은 식사나 요
리 중 채소 중 양파를 가장 많이 쓰게 마련이다.

특히 짜장면, 그중에서도 양파 맛에 의존을 많이 하는 간짜장이 맛있는 시기다. 이 시기의 양파
는 아삭아삭하고 육질이 단단해 썰이 물러지지 않으며 단맛이 유독 오르기 때문이다. 생양파를
씹어도 단맛이 입안 가득 피어난다. 단언컨대 동서고금을 통틀어 양파를 단숨에 가장 많이 섭
취할 수 있는 음식은 간짜장이 제일이다. 강한 화력으로 빠르게 볶아낸 양파가 단맛과 식감을
책임진다. 양파가 춘장 속에서 선명한 하얀색을 드러내는 것이 간짜장의 첫인상이다. 식전에
먼저 내주는 생양파까지 춘장에 찍어 먹으면 양파 한 알 정도는 기본으로 먹게 된다. 양파에 함
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 지방을 분해하고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밀가루와 설탕
등 열량이 좀 높아서 그렇지, 짜장면 특히 간짜장은 양파·양배추·파·애호박 등 신선한 채소와
발효장 등이 들어가는 건강한 음식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추억의 음식

간짜장은 중국 음식점 주방장 입장에선 사실 곤란한 음식이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어 요
리처럼 주문 즉시 일일이 볶아야 한다. 값은 식사인데, 조리법은 요리에 준하는 셈이다. 사실 간
짜장은 요리처럼 바로 조리해야 하며 물기가 없으니, 재료를 충분히 넣어야 한다. 면 없이 고기
와 채소만 좀 더 넣으면 진장로스(京醬肉絲)처럼 어엿한 요리가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메뉴에
서 간짜장이 슬슬 빠지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짜장면은 이제 우리 음식의 범
주에 든다. 자장미엔(炸醬麵)과는 다르다. 심지어 중국 관광객도 일부러 찾아먹는 한식 메뉴가
됐다. 일본의 라멘과 카레. 미국의 피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K-짜장면은 현지에서
토착화된 음식이 됐다. 원래 이름과 조리 원리는 중국에서 왔고 또 화교들이 만들어 냈지만
지금 우리가 즐기는 짜장면은 어찌 중국의 그것과 같다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짜장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각자의 추억을 품은 소울푸드(soul food)다. 졸업식이나 입
학식, 이삿날 으레 먹는 음식으로 굳었다. 1980년대 가족 외식하면 짜장면, 돈 좀 있으면 탕수
육이었다. 때가 되면 ‘먹어줘야’ 하는 메뉴, 지금도 한반도 곳곳에서 수도 없는 짜장면이 팔려
나가고 있는 이유다.

더위에 지친 나머지 기름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동네 중국집에 찾아들어 풍미 좋은 짜장면
한 그릇에 시장기를 걷어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당장 충전할 수 있다. 여름 짜장
면엔 활력이 들었다.

북경

무교동에서 ‘고추간짜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집이다. 이 매운
간짜장의 인기 비결에는 보편적인 짜장면에 대한 아쉬움이 모두 제
거 또는 보충돼 있다. 매콤한 고추를 함께 볶으니 느끼함이 덜해서
좋다. 바로 볶아내 꼬들꼬들한 면에 충분히 입혀진 칼칼한 소스가
곁들여 볶아낸 다른 채소의 맛까지 살려준다.

① 서울 중구 세종대로 20길 23.



경성식당

업태는 ‘동네 중국집’인데 반찬이 수도 없이 깔린다. 반찬은 철에
따라 바뀐다. 봄에는 냉이, 여름엔 고구마 순 식으로 계절이 반영된
다. 한정식 상에 오를 만큼 다양한 김치를 짜장면에 먹자니 황송하
다. 양념을 남겨 밥까지 비벼서 먹으면 간이 딱 맞는다. 그 자리에서
만 40년이 넘는 오래된 식당이라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② 전남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81.



길을 걷다 들에 핀 꽃을 마주할 수 있는 계절이다. 수많은 꽃 중에 금잔화를 만
난다면 당신은 행운아다. 야생화인 데다가, 관상용으로는 인기가 많지 않아
쉽게 볼 수 없어서다. 노랗고 탐스러운 꽃송이가 자신을 봐 달라는 듯 고개를
흔들고 있다면, 한 번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누길 바란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꽃 금잔화



- 학 명 : *Calendula officinalis*
- 물 주 기 :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 충분히
- 생육온도 : 15~25°C, 생육 최저온도 10°C
- 생육장소 :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



금잔화(金盞花)라는 이름은 꽃의 생김새로 인해 지어졌다. 한자 그대로, ‘금빛 술잔을 닮은 꽃’이라
는 의미를 지닌다. 8월 24일 탄생화인 금잔화의 꽃말은 ‘이별의 슬픔’으로, “당신은 헤어질 때마다
격렬하게 슬퍼하는 사람이군요.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희망도
생기는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간혹 꽃집에서 ‘금잔화(메리골드)’라는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금잔화와 메리골드는 엄연히 다른
식물이다. 금잔화는 외국에서 영어로 포트 메리골드(Pot Marigold)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포트를 빼고 메리골드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오해다.

항염 효과와 피부 재생 능력이 뛰어난 금잔화는 약용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요즘에는 식용으
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허브차로 우려내 마시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게다가 모기나 해
충을 퇴치하는 데 유용한 식물이다. 금잔화는 피레트린(Pyrethrin)이라는 천연 살충 성분을 포함하
고 있어, 베란다나 정원에 심으면 자연적인 방충제 역할을 한다.

금잔화는 주로 노란색 또는 밝은 주황색의 꽃잎이 특징이다. 단순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홑꽃
형태의 화초로 꽃잎이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그래서인지 꽃이 시든다 해도 그 자체로도 매
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야생화인 만큼, 햇빛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한다. 발아 온도는 15~20°C로, 봄이
나 가을에 씨앗을 파종한다. 옮겨심기에 잘 견디지만, 높은 기온과 가뭄을 싫어한다. 보통 7~8월을
개화 시기로 잡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기후로 3월이나 4월에도 꽃을 피운다. 작은 해
바라기처럼 해를 향해 고개를 치켜세운다. 햇빛을 좋아해 하루 6~8시간 정도 직사광선을 받게 하
는 것이 좋다. 충분하게 빛을 받지 못하면 꽃이 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장마철 통풍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곰팡이성 병이나 뿌리 썩음이 생기기 쉬워 통풍에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

《라메종베르트》이지연 대표의 ADVICE

높은 습도, 통풍이 부족하면 진딧물과 응애,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들거나 병들고 과
밀 된 잎은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식물 전용 살충제를 뿌려 관리하면 좋습니다. 꽃을 오래 보려
면, 시든 꽃은 바로 제거합니다. 꽃줄기는 아랫부분까지 잘라주는 것이 좋고, 생육기에는 2~4
주에 한 번씩 인 성분이 풍부한 비료를 주면 도움이 됩니다. 가을에 꽃대가 완전한 갈색이 되면,
수확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이듬해 3~4월에 파종하면 됩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 상처

일러스트, 나요



#01 사랑의 흔적

김영은_부산시사하구

내 얼굴 왼쪽 볼에는 작은 흔적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그걸 보조개라 부르지만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볼우물이다. 이 흔적은 내가 국민 학생 시절 겪은 교통사고 기억이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고속버스를 탄 여행길이었다. 곳은 날씨에 교통상황마저 좋지 않았던 그날, 나는 버스 뒷좌석 엄마의 무릎에 안겨 있었다. 그때 사고가 일어났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유리 파편이 내 얼굴에 튀었고, 몇몇은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아비규환 속 사고 현장에는 어떤 구조 인력도 오지 않았고, 간신히 찾아간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남은 것이 이 볼우물이다.

나는 119구급대원이 되었다.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환자들을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사고 현장으로 향할 때마다, 환자들을 만나는 순간마다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한다.

얼마 전이었다.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던 엄마가 나지막이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셨다. 그전까지 나는 이 상처로 엄마가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자식은 늘 서운한 일만 생각하고, 부모는 미안한 일만 생각한다는 말처럼, 엄마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이었을까.

하지만 그날, 나를 필사적으로 안아준 엄마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내게 볼우물은 엄마의 사랑이자,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랑스러운 훈장이나 다름없다. 엄마의 마음속 볼우물도 더 이상 아픔이 고인 자리가 아닌, 사랑의 흔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삼 형제 중 막내인 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혈관 기형이 있었다. 왼쪽 다리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덮은 검붉은 반점은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성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다.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나가면 나타나면 아이들은 ‘괴물이다’라며 도망가고, 처음 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성이의 다리를 뺨히 보곤 했다. 사람들의 날 선 시선과 아이들의 놀림은 성이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루는 성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와선 울먹이며 나에게 물었다. “엄마, 왜 내 다리에는 혈관 기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응. 그건 네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널 너무 사랑하셔서 수십억 인구 중에 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표시를 남겨주신 거란다.”

얼마 전,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성이가 체육대회에서 계주 반대표가 되었다고 신나 했다. 체육대회 당일, 성이가 체육복 반바지를 찾았다. 혈관 기형을 가리려 한여름에도 긴바지만 입던 성이었기에, 나는 전교생 앞에서 뛰는 아이가 반바지를 입어 혈관 기형이 노출될까 봐만류했다. 그러자 성이가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내 혈관 기형을 블루베리라고 얘기해 줬더니, 애들이 네 다리의 블루베리 먹어도 되냐고 농담하지 뭐예요?”

아이의 말에 도리어 내 얼굴이 화끈해졌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상처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엄마인 나만 상처에 머물러 있었구나. 오늘 아침, 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 성이에게 나는 웃으며 말을 건넸다. “우리 성이 블루베리 잘 있나?”

엄마의 농담에 성이는 “네, 블루베리가 잘 익었어요”라며 웃었다. 혈관 기형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탕글탱글 블루베리처럼 영글어 간다.

#02 블루베리 상처라고요?

한인경_경기도 용인시



#03 상처가 꽃처럼 아름다울 때

이영란_서울시광진구



언젠가 무턱대고 자라던 선인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밀동 가까이 잘라낸 적이 있다. 모양새가 엉성하다는 이유로 과감히 잘라냈다. 자른 후에도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베란다 구석, 별도 잘 들지 않는 곳에 무관심하게 방치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다시 쳐다보았을 때, 잘려 나간 상처가 그대로 굳어져 하나의 둥근 반점이 되어 있었다. 그 반점은 진액이 흐르고 마르며, 또다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이트처럼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시간을 품듯, 그 상처 위에 단단한 껍질이 덧씌워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흉터일 뿐인데 그 자리가, 오히려 꽃처럼 보였다. 진짜 꽃처럼 화려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만든 깊은 흔적이 담긴 아름다움이었다.

그 순간 문득,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오래도록 나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다. 거울 속의 나는 늘 못생겼고, 초라했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유행에 뒤처졌고, 말투도 촌스럽다고 느꼈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자랐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

어깨는 항상 움츠러들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모님의 사랑도, 형제자매의 우애도, 당시에는 마치 가난함을 감추기 위한 위로처럼 느껴졌었다.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나를 괴롭혔던 것 중 많은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정직하고 성실하셨고, 나를 위해 늘 희생하셨다. 형제자매들과는 작은 것 하나로도 웃고 떠들며 지냈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다. 내 몸은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았고, 나는 분명 사랑받으며 성장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다. 어릴 적 나에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인장은 더디게 자라지만 끈질기고 강하다. 그 특유의 고요한 생명력은 삶의 본질을 닮았다. 언젠가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던 것이 아닌,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내 안의 꽃은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상처 위에 자리한 단단함, 그 위에 피어난 조용한 아름다움. 그것이 곧 나라는 사실이, 오늘 따라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진다.

나의 오른쪽 무릎에는 약 14cm의 투명 지퍼가 흉터를 따라 지나간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의 흔적이다. 상처를 볼 때면 늘 그 날이 재생된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왕복 2차선 도로를 잇는 횡단 보도 위로, 차에 치이던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의 찰나. 하나둘씩 가족, 일, 사람, 재화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곧 온갖 감정들과 르르 쏟아진다.

“경험을 많이 하라”는 인생 조언은 틀렸다. 교통사고와 엮인 경험은 안 하는 게 나았다. 사고 후 수술부터 퇴원까지, 140여 일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 가장 괴로운 기억은 팀을 정리해달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이다. 사람들을 피해 통화를 하려 앉은 차가운 비상계단의 온도가 아직도 선명하다.

반면,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오거나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꽃과 음식을 보냈다. 각자의 사정으로 끊긴 줄 알았던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 돌이켜 보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던 가족, 직장 사람들, 지인들이 떠오른다. 사고 당시에는 가게에서 뛰쳐나와 운전자에게 화를 낸 아주머니, 119와 경찰에 신고 후 줄곧 지켜봐 준 목격자가 있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여겨 준 사람들, 그 역시도 새로운 장면이자 경험이었다.

이제는 안다. 삶은 예상할 수 없고,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발을 내딛는 쪽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라는 것을. 상처 속 이야기의 끝은 늘 해피엔딩으로 닫힌다. 문득 넘어지더라도 한 번 더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된다.

#04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

정영아_서울시관악구



다음호 주제는 ‘공간을 뒤야 하는 이유, 여백’입니다.
‘여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4~5매 (원고 접수 시 주소와 연락처 기재 必) 마감 7월 31일 문의전화 (02)511-7053 이메일 essayds@naver.com
우편 (우) 0653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하신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 표절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법 ④

내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3가지만 설정하면 안전해집니다

PASS 앱으로 '명의도용 방지'하기

- ① 사용 중인 통신사의 PASS 앱을 실행하고 [명의도용방지]를 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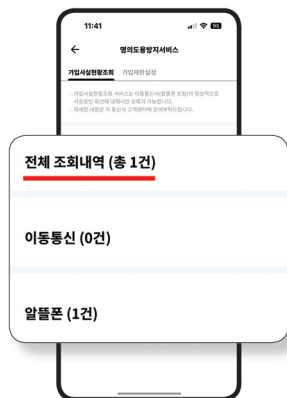
※ PASS 앱의 설치 및 회원가입 방법은 5/6월호를 참고



- ② [약관에 전체동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터치하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한 후 [가입사실 현황조회]를 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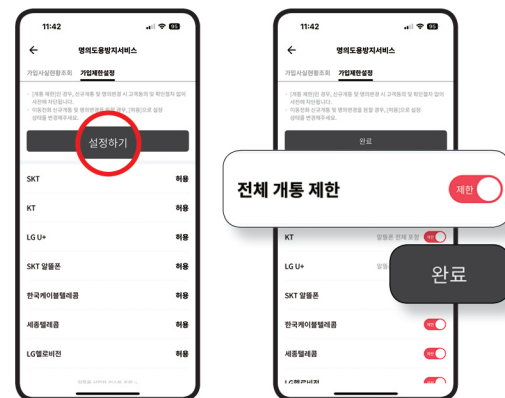


-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를 선택하고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을 터치하면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가입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④ 상단 [가입제한설정] 탭을 터치한 후 하단 [가입제한설정]을 터치한다.
- ⑤ [설정하기] ⇒ [전체 개통 제한]을 차례대로 터치해서 모두 '제한'으로 설정한 후 [완료]를 터치한다.

※ 이동전화 신규개통 및 명의변경을 원할 경우 [다시[허용]]으로 설정을 변경해야 함



최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스마트폰은 나의 일상과 재산을 통째로 담고 있는 '디지털 금고'와 같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피싱 등 심각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3가지 설정을 통해 내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보자!

글/사진. 박은지 [디지털 교육 강사]



'정보보호알림' 서비스 설정하기

※ 설정 방법 예시는 KT(마이KT 앱) 기준이며, 각 통신사 앱의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각 통신사 앱을 열고 [정보보호알림]을 검색한 후 검색 결과 중 [정보보호알림] 서비스를 터치한다.



- ② [간편가입]을 터치하여 서비스를 신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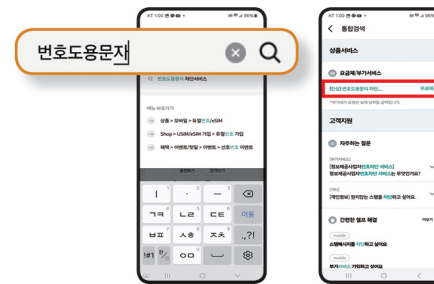
※ '정보보호알림'이란?
해킹, 유희, 바이러스 등 인터넷상 위험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무료'부가서비스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설정하기

※ 각 통신사 앱의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번호도용문자]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 중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를 터치한다.



- ② [간편가입]을 터치하여 서비스를 신청한다.

※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란?
문자 발송 프로그램/웹에서 발송되는 스팸/스미싱 문자에 내 번호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무료'부가서비스





Recipe_01

열무 들기름 막국수



<재료>

백 열무김치 100g, 메밀면 200g, 들깨가루 2큰술
양념장: 들기름 3큰술, 진간장 2큰술, 설탕 1작은술

<만드는법>

1. 백 열무김치는 1cm 크기로 자른다.
2. 볼에 들기름, 진간장, 설탕을 넣고 섞는다.
3. 메밀면을 끓는 물에 넣어 4~5분 삶은 후 건져 낸 후 찬물에 헹구고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다.
4. 그릇에 면을 옮겨 담고 위에 ①의 백 열무김치를 올린다.
5. 들깨가루와 양념장을 기호에 맞게 뿌려 먹는다.

Recipe_02

크리치오 쿠키로 만드는 마시멜로 쫄면쿠키



<재료>

크리치오 쿠키 220g,
버터 100g, 마시멜로 400g, 탈지분유 100g

<만드는법>

1. 약불에 버터를 녹인 후, 마시멜로를 넣고 잘 섞으며 녹인다.
2. 마시멜로가 완전히 녹으면 불을 끄고 탈지분유를 넣고 덩어리 지지 않게 섞는다.
3. ②에 크리치오 쿠키를 넣어 섞는다.
4. ③을 사각틀에 옮겨 손으로 평평하게 눌러 담고 냉동고에 20~30분 얼린다.
5. 기호에 맞게 잘라먹는다.

건강한 여름을 위한 이웃돕기 네이버 해피빈 성금 1억 원 기부

Dongsuh News_01

동서식품은 지난 6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네이버 해피빈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폭우와 한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한 성금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수혜처에 전달되어 냉방 기구, 여름철 의류, 영양식 구매 등 휴가 대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단체에 기부금 전달

Dongsuh News_02

동서식품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총 3,000만 원의 기부금을 환경 보호 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 변화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기부금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체인지메이커, 휴먼인러브, 환경재단 등 여러 환경단체로 전달되어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체인지메이커에서는 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식재, 휴먼인러브는 해변 및 수중 쓰레기 수거, 환경재단은 갯벌 도요새 서식지 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서식품은 “세계 환경의 날이 있는 6월을 맞아 이번 환경단체 기부 외에도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과 같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회사와 직원이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크래커와 김의 바삭하고 고소한 만남! ‘리츠 크래커 바삭 김’ 출시

Dongsuh News_03

동서식품이 바삭한 리츠 크래커에 국내산 김을 더한 색다른 풍미의 신제품 ‘리츠 크래커 바삭 김’을 출시했다. 리츠 크래커는 1934년 발매 후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통 크래커다. 동서식품은 ‘리츠 크래커’와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를 중심으로 다양한 리츠 크래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리츠 크래커 바삭 김’은 리츠 크래커와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김이 만나 특유의 고소함과 바삭함이 조화를 이루는 신제품이다. 크래커 속 김가루가 리츠 크래커와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동서식품은 신제품 ‘리츠 크래커 바삭 김’ 출시를 기념해 리츠 크래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비자 이벤트와 오프

라인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정모 마케팅 매니저는 “신제품 ‘리츠 크래커 바삭 김’은 크래커와 김이 서로 바삭하고 고소하며 짭짤하다는 공통점에서 착안해 개발한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맛의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콤부차와 애플사이다비니거를 스틱 하나에! ‘동서 애사비 콤부차’ 3종 출시

Dongsuh News_04

동서식품이 콤부차와 애플사이다비니거(사과발효식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신제품 ‘동서 애사비 콤부차’ 3종을 출시했다. 콤부차는 홍차나 녹차를 우려 유익균, 당과 함께 발효시킨 차 음료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산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동서식품은 최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콤부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 30년 이상 쌓아온 차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동서 애사비 콤부차 레몬 라임’, ‘동서 애사비 콤부차 피치 패션프룻’, ‘동서 애사비 콤부차 파인애플 망고’ 등 3종이다. 동서 애사비 콤부차는 국내산 현미와 하동산 녹차로 만든 콤부차 분말에 국내산 사과를 발효시킨 애플사이다비니거를 더해 신맛과 단맛의 균형과 진하고 풍부한 과즙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설탕을

넣지 않아 당분과 칼로리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스틱에 담긴 파우더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세범 마케팅 매니저는 “‘동서 애사비 콤부차’는 일상 속 가볍고 상큼한 재충전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여름 밤
<삶의 향기>와 함께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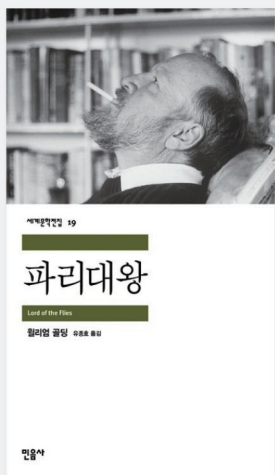
About the Book_01



《어른이 되어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다혜

<삶의 향기> 5·6월호를 읽고 나서, 문득 떠오른 책이다. 이번 호에서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여유로운 풍경과 윤성근 현책 수집가의 이야기까지, 일상의 소중함과 삶의 속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내용이 참 많았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뭔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일'이라는 작가의 말이 떠오른다. 특히 리스본 여행기를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느긋한 도시에서 잠시 멈춰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도 그런 '멈춤'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무언가 해내야 할 것 같은 삶 속에서, 가끔은 나를 좀 내려놔도 좋다. 복잡한 삶에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흔들리는 나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는 느낌도 든다. 조용한 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고 천천히 읽기 좋은 책이다.

고유미_서울시 동작구



《파리대왕》- 윌리엄 골딩

『파리대왕(Lord of the Flies)』은 1983년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대표작이다. 소설은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마치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는 것처럼 불편하게 읽힌다. 소설은 비행기에 탄 아이들이 무인도에 불시착하면서 시작한다. 아이들은 고립된 섬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서열과 무리를 만들며 어른들의 사회 구조를 답습한다. 무리는 서로 반목하다가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다. 아이들로 대표되는 인간 군상들이 펼치는 권력 다툼은 오래전에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중학생이었던 내게 쉽게 가시지 않는 충격을 줬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읽는다면 혐오로 얼룩진 사회와 양극단으로 갈라진 국민의 모습이 떠올라 자괴감이 들 것이다. 소설이 발간된 지 칠십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모순투성이라는 점에서 그 주제 의식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완수_전주시 덕진구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7·8월호를 읽고 떠오르는 신간이나 기억에 남는 도서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이메일) essayds@naver.com * 접수 마감: 2025년 7월 31일(목) (이름, 연락처, 주소 기재)

아날로그의 감성 그 진심을 담다
독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가득 찬 예쁜 엽서를 소개합니다

Pretty Postcard_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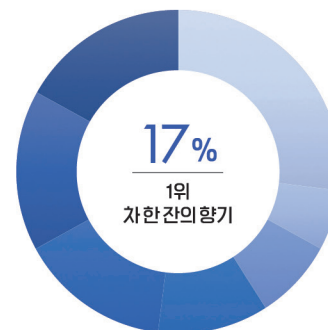


* 예쁜 엽서 당첨자

김보혜_서울 동대문구
김하정_경기 화성시
박영수_서울 양천구
오인화_경기 과천시
이은정_경기 평택시

선호도 칼럼 조사
5·6월호 독자 여러분의 선택

Preference Column_03



독자 여러분께서 엽서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총 536건(6월 5일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칼럼으로 '차 한 잔의 향기'와 '올 댓 커피', '길 위의 시간', '한국의 재발견', '도시를 걷다', '맛있는 이야기'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위] 차 한 잔의 향기	17%	[4위] 한국의 재발견	11%
[2위] 올 댓 커피	16%	[5위] 도시를 걷다	8%
[3위] 길 위의 시간	15%	[6위] 맛있는 이야기	6%
		기타	27%

독자의견



차 한 잔의 향기
윤성근님의 책 사랑 이야기가 진하고
그윽한 커피의 향처럼 매혹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책과 인생을 향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 듯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임주연_서울 광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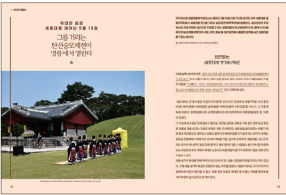
길 위의 시간
일상에 지쳐 있는 지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5월이면
보랏빛으로 물든다는 도시의 풍경속으로
꿈을 꾸듯 여행을 시작하고 싶다.
손현주_서울 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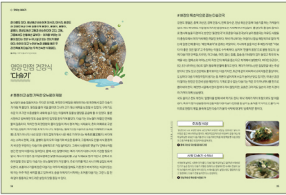
도시를 걷다
대전이 '빵도시'가 된 듯해요. 빵도 좋지만
대전의 인문학 여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꼭 대전을 방문해서 같은 코스로 다녀
봐야겠어요!!
위용민_경기 용인시



올 댓 커피
커피의 문헌기록을 시작으로 최초 수입 시기와
유통량, 과거 커피 문화도 소개되어 유익하였다.
우리나라 커피문화가 앞으로 100년 후 그
이상의 시간속에서 어떻게 발전할 지 기대된다.
민경진_서울 강남구



한국의 재발견
우리 것이라서 당연히 여기며 스쳐 지나가기
쉬운 역사나 유적지에 대해 알려주는 점이
좋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백성 사랑도
더 잘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유대현_서울 성북구



맛있는 이야기
어릴 때 길에서 사먹는 다슬기를 꽤
좋아했어요. 요즘은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다슬기 근황(?)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맛집 소개도 굿!
이지현_경기 부천시

독자엽서 당첨자

- | | |
|-----|---------|
| 강용수 | 경기 부천시 |
| 강춘자 | 광주 북구 |
| 고선해 | 전북 익산시 |
| 고 유 | 전북 군산시 |
| 권경중 | 서울 서대문구 |
| 김갑서 | 전남 광양시 |
| 김동현 | 대구 달서구 |
| 김미경 | 충남 논산시 |
| 김연정 | 서울 성북구 |
| 김영순 | 서울 송파구 |
| 김예송 | 대전 서구 |
| 김은정 | 부산 사하구 |
| 김정수 | 충남 당진시 |
| 김정순 | 경기 하남시 |
| 김지우 | 경기 양주시 |
| 김형민 | 경기 파주시 |
| 박경환 | 경기 부천시 |
| 박다원 | 서울 서대문구 |
| 박미식 | 경기 구리시 |
| 박미자 | 경기 수원시 |
| 박정숙 | 경기 안성시 |
| 박현정 | 대구 서구 |
| 배근희 | 부산 금정구 |
| 서순이 | 인천 부평구 |
| 손영선 | 경기 수원시 |
| 신현길 | 대구 달서구 |
| 안경섭 | 광주 서구 |
| 안정숙 | 경기 성남시 |
| 안현주 | 인천 연수구 |
| 양영철 | 광주 광산구 |
| 오호정 | 부산 동래구 |
| 유경미 | 경남 진주시 |
| 유향자 | 서울 강서구 |
| 윤명희 | 충북 청주시 |
| 이경희 | 부산 연제구 |
| 이규만 | 서울 종로구 |
| 이상화 | 경기 수원시 |
| 이상훈 | 경기 평택시 |
| 이연희 | 인천 연수구 |
| 이주희 | 서울 강북구 |
| 이창민 | 경기 광주시 |
| 장금숙 | 서울 은평구 |
| 장명숙 | 광주 동구 |
| 장홍관 | 서울 중랑구 |
| 정미경 | 서울 강동구 |
| 정민호 | 경기 양평군 |
| 하애정 | 경기 평택시 |
| 허윤경 | 경기 용인시 |
| 허현옥 | 경북 경산시 |
| 홍정숙 | 서울 관악구 |

※ 독자상품은 7월 중 배송됩니다.

← 브랜드 스토리



퍼진다, 퍼진다
웃음과 행복은 퍼진다
한 잔의 모카골드처럼

지금 행복 하자, 지금 행복 한잔
맥심 모카골드

독자퀴즈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할 때 바다를 향해 우뚝한 대에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좌선하던 곳이다’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곳은 어디인가?

★ 31쪽을 참고해 독자 엽서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응모하세요.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 문제로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엽서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표기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정답

사랑과
인식의 출발

5·6월호 정답자는
511명입니다.

진한 집중 한잔



Maxim. 모카골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는 동서식품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외보입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의 내용에 대하여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불가피하게 사외보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경로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독 신청 안내

당사의 사외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께서는 ①홈페이지 본인 인증 또는 ②독자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www.dongsuh.co.kr → 홍보센터 → 웹진 삶의 향기
→ 신규 구독 신청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 호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독자 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 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2.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종지요청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발송 및 당첨자 경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당사는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 케이아트만㈜, ㈜인스팟, 월드피에이디
2. 위탁 업무 내용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3. 동서식품(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및 엽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의사항】 사외보〈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편집실

Tel : 02-511-7053 / E-mail : sarmhyang@naver.com (수탁자 케이아트만㈜에서 진행합니다.)

· 이 름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 신규 ☐ 변경 ☐ 중지 ☐ 기존

독 / 자 / 의 / 권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칼럼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퀴즈/정/답

· 정 답 :

· 연락처 :

정답자 상품 배송을 위해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부담

발송유료기간
2025. 05. 01 ~ 2027. 04. 30

서울시서울우체국
제 4138호

받는 사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층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향기

2025 * No.53

July + August

창간원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n.co.kr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는
매스텔 향기의 시트로온 이름입니다

창간원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